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o.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www.webkam.org/journal](http://www.webkam.org/journal)

한미목회연구소  
다리놓는사람들  
*Building bridges  
in all communities*



**KOREAN  
AMERICAN  
MINISTRIES**

[WWW.WebKAM.org](http://WWW.WebKAM.org)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umber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Editor and Publisher**

Paul Junggap Huh, Ph. 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Editorial Associate**

Daniel Adams  
Decatur, Georgia

**Advisory Board**

Korean-American Professors i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

For any questions, subscription, and  
articles please contact:

Tel. 404-687-4538

E-mail: [huhp@ctsnet.edu](mailto:huhp@ctsnet.edu)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journal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Korean American Ministries  
at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Korean American Ministries

701 S. Columbia Dr.

P.O. Box 520

Decatur, Georgia 30031

[www.webkam.org](http://www.webkam.org)

# James Jungho Kim 김정호

Shin Yang

## Abstract

Many Korean churches are experiencing revivals today. James Jungho Kim, the senior pastor at Korean Methodist Church, Duluth, GA especially stands out for his ability to build personal characteristics that is contributing to this revival. Pastor Kim stated that holiness and beauty must come out during the worship service. We must praise with a true heart, and we must live our daily lives through the lessons we receive during the worship service. Pastor Kim stresses in his sermons the importance of holding onto Jesus Christ and letting him live through us. Most importantly, he aims for the goal that his congregation realizes the opportunity to live freely through Christ. He stated, "I already experienced exodus, freedom, and love through Jesus Christ."

## 들어가는 말

현재 Atlanta 는 미국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한인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다.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한인교회 역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한인 감리교회가 있다. 특히 한인 감리교회는 김정호 목사가 1997 년에 부임하면서 Atlanta 내의 대표적인 한인교회로 성장했으며, 어려운 이민교회 내에서 독특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 원인과 이유를 한인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김정호 목사와 예배

### 거룩함의 회복

모든 교회의 성장의 중심에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중심이 있다. 김정호 목사는 현재 한인 감리교회의 예배를 감리교 예배도 아니며, 장로교 예배도 아닌, 주소가 없는 실용적인 예배로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심지어 현재는 예배의 혼돈기에 있다고 이야기한다.<sup>1</sup> 하지만, 김정호 목사가 예배 가운데 가장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한다.<sup>2</sup> 이는 이 시대 모든 교회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sup>1</sup>

<sup>2</sup> , [ ], 2007 , p.286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배 속에서 추구해야하는 거룩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김정호 목사가 말하는 Roll Model 의 예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김정호 목사는 워싱턴에 있는 Church of Saivor 와 같이 어렵고 가난한 지역에서 매일 낮 12 시에 소규모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쉬지 않는 그러한 열정의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sup>3</sup> 이는 일반적인 이민 교회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들, 자기 과시적 예배 또는 불필요한 몸짓들이 많은 그러한 예배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진실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김정호 목사는 주장한다.<sup>4</sup>

### 예배자의 삶

현 많은 교회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 전혀 동화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김정호 목사는 예배를 통해 6 일간 세상 속에서의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sup>5</sup>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예배자의 삶의 시작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 한어권 예배와 영어권 예배

현재 김정호 목사는 영어권 예배를 직접 인도하고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년에 6~7 차례씩 영어권과 한어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기에 많은 점이 불편하지만, 김정호 목사는 이민사회 속에서 불편함이 현실이니, 불편함을 어려워하지 말고,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함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sup> 특히 그는 한어권과 영어권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 솔루션으로 예배를 통한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정호 목사와 설교

#### 예수안에서 느끼는 자유

김정호 목사의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김정호 목사가 얼마나 이념적인지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단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그가 설교시간에 드는 예가 다분히 본인주변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

되어진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하지만, 김정호 목사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이다. 김정호 목사는 이념주의 설교의 한계가 바로 예수의 실종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유교나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의 문화를 교회로 들여왔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드러나야 하며, 예수의 케리그마가 바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케리그마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있어야 하며, 그때에 진정한 자유함의 삶을 살수 있다고 이야기한다.<sup>7</sup> 그래서 그는 복음서를 자주 설교한다. 성도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설교

일반적인 목사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 형식이 주로 Teaching 과 Ought-to 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또다 른 율법주의적 설교이다. 김정호 목사는 먼저 설교할 때에 절대로 음성을 높이지 않는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Invite 하는 설교를 하고자 한다.<sup>8</sup> 즉 답을 주는 설교가 아닌, 설교를 듣는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설교를 하고자 한다. 이것이 성도들이 설교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자유함이다.

### 변화를 추구하는 설교

김정호 목사는 먼저 설교를 통해 자기 스스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9</sup> 동시에 설교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번은 같은 주제의 설교를 연속 6 번을 한적이 있다고 한다.<sup>10</sup> 기존의 목사님들과는 다르게 설교의 대상이 명확하게 성도이며, 그들의 삶이다. 그래서 흔히 설교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설교 안에 있다. 이 부분은 많은 목사님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만, 목회적 관점으로 꺼려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김정호 목사에게 설교란 하나님의 이야기, 목사의 이야기, 그리고 성도들의 이야기가 만나는 자리라고 믿기에 바른 신앙과 바른 삶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한다.<sup>11</sup> 하지만, 김정호 목사가 설교 중에 가장 염려하는 것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다. 즉, 듣는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또한 자신의 설교가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말씀이 설교자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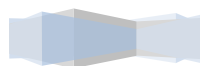
8 , [ ], p.141

9 , [ ], P.346

10

11

12 , [ ], p.114



자신의 인간적인 가시였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설교자가 가질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그는 고백한다.

### 설교본문 분석

김정호 목사는 지난 2년(2008~2009)동안의 설교본문(총 65 본문)을 분석해 보면 신약성경이 50번, 구약이 15번으로 대예배에서는 신약 집중적인 성향을 보여주었고, 특히 신약성경 가운데 복음서가 32번(요한복음 19번, 다른 복음서 13번)을 차지할 정도로 복음서 중심의 설교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김정호 목사가 예수 집중적인 설교를 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볼 수 있다. 또한 구약성경과 신약의 서신서들은 수요일예배를 통해 집중적으로 설교되어진다.

### 결론

김정호 목사를 만나고 인터뷰 하면서 느낀 것은 그의 자유함이었다. 그는 교인들 앞에서 당당했다. 그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해방의 경험, 자유의 경험, 그리고 사랑의 체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sup>13</sup> 그가 추구하는 예배와 설교에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었다. 그는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식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주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와 설교 속에서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 Resources:

김정호,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2007 신앙과 지성사.

김정호 목사와의 인터뷰

한인감리교회 Homepage: <http://www.kcaumc.org>

김정호 목사 Blog: <http://blog.kcaumc.org/cjameskim>

김정호 목사 칼럼: <http://www.christianitydaily.com>

## 한인감리교회 김정호 목사 인터뷰

Date : 11. 25(Wed.) pm 6:55~7:40

Place : 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실

### ■ 목사님께서 정의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인교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저는 시카고에서 개척할 때는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그랬는데, 아틀란타에 와서 그리고 좀 교회가 커지면서 예배가 너무 실용적으로 흘러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대로

1 부는 전통 2 부는 현대예배 3 부는 하고 카테고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교인들이 Homogeneous 할때는 변동도 많지 않고 비슷한 분들이 모였을 때는 예배를 의미부여 하면서 Liturgy 라든가 설교자체도 Lectionary 설교도 하고 했었는데, 현재 우리 교회 자체는 완전히 혼돈기에 빠져있죠. 혼돈이라고 하면 심한거고, 실용적인 Category 로 나눈거예요. 우리 교회가 스텝들도 많이 고민하는게, 예배의 현주소, 영성의 현주소를 얘기를 나눴어요. 주소가 없어요. 목사들도 주소가 없는 목회를 하고 있고, 목사들도, 그 문제를 작년부터 많이 고민하고 있죠.

### ■ 얼마 전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다 나온건데..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교단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감리교 적인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한계라고 그럴까, 현 주소라고 그럴까. 우선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설교에 대한 기대에 대한 비중과 다른 예배에 대한 비중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데, 그거를 맞춰 갈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고 하면 나는 6일간 세상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 삶을 준비하는 예배. 이게 실천적으로는 어렵지만, 예배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는 쓰죠. 그래서 예배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가 할 말이 없고. 나는 이 시대의 교회의 과제가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룩함이 뭐냐?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배로 그런 의미로 애를 쓰고 있지요.

### ■ 제가 예배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독특한 몇가지를 발견했는데, 다목적 실과 채플실을 교차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던데요.

우리가 1부 채플에서 드리고 다른 2부 4부는 다목적 실, 그건 수용공간 때문에 그렇지요. 1부 예배는 다소 적은 인원이 나오니, 채플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다목적 실에서 하지. 이제 본당을 지어요.

### ■ 독특한 것이 기도문을 홈페이지에 올리신 것이 독특했습니다. 보통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Private 하게 남기는데 기도문을 공식적으로 올리셨던데요.

대표기도라서 부목사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 ■ 3부 예배가 영어권을 위해서 예배를 시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문서도 이중언어로 작성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서 1 세와 2 세가 그 예배에서 잘 적응이 되고 있는지요?

잘 안되죠, 적응이. 적응이 잘 안되기 때문에 두 가지 딜레마예요. 영어권 설교를 영어권 담당자가 했었는데... 내가 몇 달 전부터는 하지요. 그건 영어 담당자가 나갔기 때문에 하지요. 금방 그만 돌려고 했는데. 영어권 교인들이 내가 계속 설교해 주길 바라는 이슈가 있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영어만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거나, 생활 쪽으로 연결되길 바래가지고, 계속 내가 설교해 주길 바라는 요청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한영합동 예배를 계속 고집을 해요. 우리는 6~7 번인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영어권은 영어권대로 불편하고, 한어권은 한어권대로 불편하고. 그런데 나는 고집이지만, 불편한 것이 우리 현실인데, 불편해 하지 말자. 설교도 Bilingual 설교를 할 때에 한국말로 하다가 영어로 하다가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커뮤니티인데, 언어 때문에 나뉘는 것을 원치 않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가 영어를 좀 하니까. 같이 묶어 불러고 애를 좀 써요. 무엇보다도 영어권에서 협조가 좀 약해요. 한어권은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우리 2 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영어권은 인내가 좀 약한 것 같고, 좀 스포일 된 것 같아요. 자기 편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딜레마예요. 그런데 내가 고집을 피우는 거지요.

나는 영어권 예배 독립을 원치 않아요. 독립은 무슨 독립이야. 상호 연관 관계지. 그건 무책임한 독립이에요. 같이 예배드리기 바라고, 그런데 문제가 2 세가 영어에 대해서 좀 교만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300 명이 미국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든. 한국 사람들이 조금 엑센트가 있고 그래도 잘 하는데, 우리 2 세들은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영어 못하면 굉장히 짜증내고 그래서, 내가 담임목사고 그러니 못하는 것뿐이지. 그거는 나는. 그리고 2 세 목사들도 보면, 목사 훈련을 안받고 목사를 하더라고 대부분.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2 세 목사들 들어와도 나는 다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설교 공부도 시키고.

### ■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Roll Moedel 의 교회나 예배가 있으십니까?

워싱턴있는 Church of Savior.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에서 매일 12 시에 작은 소규모 예배를 드리기에 포기하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삶속에서 같이 예수님의 Presence 를 가져오는 기도모임 예배 이런 것이 중요하고 예배의 롤 모델이라는 것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탐 킬러 같은 사람. Resurrection 교회 맨하탄의 예배는 직접 드리지 못했지만, 아름다움의 회복 예배 속에서의. 그 다음에 설교의 Intellectual Integrity. 지적인 양심과 삶의 연관성.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예배의 어떤 형태든 아름다움이 너무 많이 이민교회나 결여되어 있다고 느껴요. 예배가 과시적인 것이 너무 많고 큰 교회에서, 그리고 불필요한 몸짓들 많고, 자기가 아닌 자기의 모습들로 드리는 예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진정한 어텐티브한 아름다움을 찾는 예배가 뭘까. 나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연구 같이 고민만 하고 있지.

### ■ 그래도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성도들이 모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 2 세와 영어권과 한어권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그 예배가 나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예배가 따로 있지요. 그러나 합동 예배를 같이 드리지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현재 있는 영어권 목회를 1.5 세도 조인 시키면서 좀더 확장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 ■ 먼저 목사님의 설교가 Atlanta 에서 대단히 유명하시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인으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지루하지 않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설교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설교자의 이야기와 성도들의 이야기가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요즘 젊은 목사들하고 설교공부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Answer 를 줄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라. Ought-to 를 쓰지 말아라. 그건 율법이거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는 설교의 Process 가 의도적으로 들어가는게 많아요. 설교 말씀이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과 당사자의 마음과 이거를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연관을 시켜 불려고 노력을 해볼려고 제가 애를 쓰지요. 억지로 감동 주려는 노력을 절대로 안 할려고 그러구요. 설교는 내가 설교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일부러 나를 내려놓지요.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많이 하지요.

#### ■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는 잘 하는데, 너는 못한다. 티칭 자꾸 하려고, 야단 치려고 하거나. 나는 절대 그렇게 안해요. 나눔을 하지요. 인바이트 하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 얘기 거의 안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애길해주고, Invite 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가 제 설교를 좋아하는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떠나요. 그런 사람은 목사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외쳐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레디 러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교에 새디스틱한 설교와 메조키스틱한 설교로 교인들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나는 Unhealthy 한 관계를 설교자와 회중의 관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톨이나 내용이 건강한 관계로 Build-up 하고 사랑의 자화상, 거룩함과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디스틱한 캐릭터 절대 용납안하고, 내 자신이 그리고 언어 자체부터도 평범한 제가 쓰는 언어가 친교시간과 강대상에서 똑같아요. 강대상에 가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없어요. 교인들 얘기가 다 자기하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교인이 많은 적든간에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요. 나는 당신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가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는 절대 포기 안해요. 복음은. 케류그마를 놓치면. 케류그마를 우리 삶 속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 빠지면, 설교는 끝이거든요. 나는 어떻게든 예수님과 만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죠. 나는. 그래도 설교 내가 불안하지.

**■ 요 근래에 쓰신 글 중에 보니, 상당히 설교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좀 덜하지만. 주일아침에 문을 많이 잠귀요. 많이 울고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나를 한번 Process 하고 그리고 주중에 내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고, 이것이 정말 어떻게 전달되었나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지루하게 당연한 이야기를 오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현대 지성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이야기. 어거지. 나는 그런건 안해요. 설교 자체가 그 건강한 관계 형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원했던 건강한 관계형성의 틀을 계속 사용하려고 그러지.

**■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켜지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즐리지 않는가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구요.**

나는 거의 3분마다, Attention Span 이 짧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서론 본론 결론의 설교를 안해요. 나는 모든 3분 안에 서론 본론 결론이 같이 들어가지요. 계속 그 안에서 뭘 좋다고 하나를 얻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인터넷이나, 예화집의 예화는 절대 안들어요. 항상 실화 나의 나눔이지요. 위험이 있어요. 그래 가지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솔직히 내 놓기를 바라지요.

**■ 좀 약간 결결일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비슷한 유의 설교 중에 하나가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아십니까?**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국의 설교와 비슷하다고, 김동호 목사 설교는 좀더 복음주의 적이고, 나는 좀더 진보성을 띄고, 그 분이 좀더 보수 중도를 띠더라고요 그러는데. 나는 김동호 목사 설교 좋아해요. 근데 나는 어떤 때는 생활에 연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김동호 목사도 그러시더라고요.

**■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파워풀하다. 목사님께서 대화와 강요없이 뭔가 나눔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 제가 받는 느낌으로는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있거든요. 톤이 변하지 않지만, 편하지만, 동시에 강한 임팩트가 있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목사님의 설교가 많은 성도들에게 주는 장점이 아닐까요.**

저는 설교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느낄려고 애를 써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려고 애를 쓰지요. 거기서. 그리고 이런 말은 좀 뭐하지만. 설교를 하고 싶어요. 내가 관심 가지는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설교를 꼭 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지요. 한번은 내가 여섯 번인가를 부인들에게 함부로 하는 가정을 소홀히 하는 야단을 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하니까. 저놈 내가 바뀌어질 때까지 할거라고. 그랬던 적이 있지요.

**■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에 굉장히 위험한 설교라고 하는데**

예, 저는 항상 위험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신학할 때도 그랬지만, 나는 79 년도에 M.Div 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보는 훈련을 하고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고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서냐 그거거든요.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있죠.

**■ 그러면, 물론 감리교에도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과 보이지 않는. 특별히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가 기장목사이기도 합니다만, 기장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눠거든요.**

성품과와 한신쪽.

**■ 예, 성품과와 일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민중교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민중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반 교회에서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자연스럽게 나누시더라고요. 물론 오랜 시간 함께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그건 우리 교인들이 허락해줘서 가능해요. 우리 교인들이 나에 대한 신뢰를 주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쯤 되면 싫으면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건강한 문화 속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불편할 수 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면, 물론, 교만하면 안되지만,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서 건강해지던가.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내가 놈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우리 아들놈' 내가 그래서 누가 자기보고 놈이라고 그랬나? 보면 인생 고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괜히 교회오면 고상한 척 하고. 나는 그런 것 아주 싫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주 문제 되는 것이 7년 개근상 주고 그러더라고. 주일 성수했다고. 나는 그런거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7년씩 한번도 안빠지고 교회다니냐? 주일에 놀러도 다니고 그러라고.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유교적인 종교, 불교식적인 종교문화가 기독교 안에 자리잡고 있어서 진정 예수님이 자리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한동안 유명했던 것은 그 분이 그런 틀을 깨서서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보면, 괜히 스스로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뒤에 가서 안그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요. 내 스스로 자유로워야지요. 예수 믿는 것이 자유인데 뭐.

**■ 그래서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아버님이 장로교 목사고, 아버지도 장로교 나중에 교단이 달라졌지만, 목사 하셨고, 나는 보스턴 대학 신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신학 공부하면서 Tillich 부터 시작해서, 해방신학자로 통해서, 우리 때는 해방신학, 흑인 신학 그런 것이. 나는 너무 신났어요. 공부. 이게 자유구나. 이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구나. 사람들은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욕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Compassion 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나는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유함과 그 기쁨. 그것이 거룩함의 회복이예요. 사랑의 회복이고, 나는 열등의식 속에 살던 사람이고, 남을 만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는 People 플리저로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부터.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교회가 작은 때도 기죽은 적이 없었고. 교회가 크다고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어요. 나는. 나는 교인들 잘 보이려고 품 잡은 적도 없고. 학생 목회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있는데. 나는 뭐 자랑같지만. 아무리 큰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비굴한 적 없고, 아무리 초라한 사람 앞에서도 건방지려고 하지 않고. 물론, 내가 예수님의 근처를 따라 갈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분 때문에 온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이거는 그 기쁨이 있는 거지요.

**■ 사실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자녀들은 교회에서 자유하기 어렵거든요. 더더우기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걸 하신 것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나는 사실은 감사하게, 향린 교회 계시던 홍근수 목사님을 통해서 사상과 이념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받았어요. 어네스트 블록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진정한 막시스트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Marxist 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소위사상과 이념의 타부를 뛰어넘는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광노순 목사님 밑에서 3년을 또 공부를 했어요. 광노순 목사님은 노자 장자, 후기 기독교 쪽인데. 그 분 밑에서 내가 진정 거리낌 없이 사는 자유가 된다. 노자의 예를 많이 했지만, 그분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나는 한번 욕을 먹는 맛을 봤어요. 나는 빨갱이로도 몰려왔고, 노자 장자 또 불교 같은 것도 나는 불타자가 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석가탄식 축하하는 것, 종교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욕을 먹고 뛰어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목회를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유의 맛. 예수 믿는 기쁨의 맛을 봤기 때문에 옛날로 안돌아 가지요. 품잡고, 괜히 언어나 이런 걸로 거룩한 척 이런거 안하고, 가능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 하지요.

### ■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트레이닝의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고재식 선생이 나에게 제일 먼저 선생이지요. 고등학교 때. 고재식 선생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봐라. 가난한 자의 입장에 서 봐라. 여자의 입장에 서 봐라. 배고픈 자의 입장에 서 봐라. Why 를 질문 던지는 것을 고재식 선생이 가르쳐 주셨고, 홍근수 박노순 목사는 양쪽 extreme 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독하게 받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자신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유함을.

그리고 이런 말은 뭐하지만, 목사는 실력이 없으면 안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진짜 공부 많이 한 분들이었어요. 나는 지금도 신학자 책들 읽으면서 다시 공부하고. 일반 서적도 읽고.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더 역사의 흐름이나 삶의 현장의 뉘앙스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요. 준비 안된 설교는 가능한 안해요.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지 그거는.

### ■ 그러면 방금 그 말씀을 이어서요. 설교준비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서 주일설교를 완성을 하시는지? 보통 하나를 하시면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 하실텐데요.

제가 몇 년 전까지는 한달 전에 기획된 설교를 했었었어요., 그런데 제일 편한 것이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강해설교를 하는 거예요. 편하고 좋아요. 무얼 설교할지 고민안해도 되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책읽는 것을 소홀히 안하려고 그러지요. 우리 때 신학 공부할 때는 항상 사회 돌아가는 것과 성령과의 만남을.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나는 심리적인 그 개인의 삶의 문제를 예전에는 사회주의를 주로 했었고. 90년대는 카운슬링을 공부했었어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찾으려 애를 쓰는 거지요.

### ■ 그러면 본문을 잡으시면 그 본문을 가지시고 일주일을 준비하시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언제쯤 쓰시는지요?

준비 잘 못해요. 게을러져서. 교회 일이 많아서 못하는데. 그런데 늘 생각하고 있지요. 근데 뭐라 그럴까 신기하다 그럴까 고맙다고 그럴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마음이 떠 오를 때가 제가 요즘 교인들에게 미안한 것은 많은 시간을 투자를 못해요. 근데, 최소한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에 뭔가는 꼭 붙잡고 나가지요. 어떤 때, 이야기 거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요즘에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지요. 하나만 가지고 해볼려고 그런단가. 예전에 요한복음 3 장 16 절을 세 번 설교했는데. 설교준비는 많이 못해요. 나는 직관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느낄려고 그러지요. 리서치는 평소에 되어 있는 것이 많으니까. 나는 이거는 Perspective 일거라고 봐요. 내가 배워온 신학적 Perspective 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정해도 그 Perspective 가 예수님을 통한 해방의 경험, 자유의 경험, 사랑의 체험 이것이 주어진 거지요. 준비를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같은 텍스트를 보더라도, 그 쪽을 자꾸. 이미 주어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감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북스러운 것을 놓고 설교를 하니깐, 교인들이 어프로치가 쉽겠지요. 중간에 막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는. 목소리가 갑자기 올라간단가? 재가 왜 저러나 이상한 행동 안하니까. 신뢰감을 줘 주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이 들어요 설교 듣다가. 그게 아마 Process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 ■ 그 또 하나 설교를 보면서 들었던 것은 셀그룹을 통해서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요?

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거부하기도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해요. 말씀과 삶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기 바라고, 많은 것을 가리 킬려고 하지 않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을 해보기를 바라는 거지요.

■ 한번 제가 목사님 설교 본문을 분석했는데요, 목사님 블로그에 있는 Topic 과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2009년부터 지난 2년간 65 구절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신약기 50 절 정도, 구약을 15번 정도, 특별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신 부분이 요 근래 요한복음 강해를 하시니까. 요한복음 19번 정도, 그 나머지 복음서 13번 정도해서. 신약 가운데서도 대다수를 복음서를 주로 하시고, 에베소서나 그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구약성서와 서신서쪽은 수요일에 해요. 요즘도 수요일에 잠언 강해를 하고 있지요. 야고보서나 고린도, 로마 이런 것은 다 수요일에 예배 때에 강해로 하고 좀더.

### ■ 설교시간은 얼마나 하시지요?

주절주절하면 40~50 분 정도. 할 얘기는 다하고. 걸다리도 갔다 왔다가 하고. 나는 주일날 설교에는 정치적인 설교 안해요. 수요일 날은 괜히 쓸데 없이 장로도 잡았다. 집사도 잡았다 그러지요. 주일 날은 내 개인의 감정을 안드려내요. 그래서 지금 얘기 하신대로, 구약은 느헤미야부터 창세기부터 다 수요일에 해요. 그래야만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목사에게 제일 설교하기 좋은 곳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거는 반복적인 것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뀌니까.

### ■ 사실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이 제일 가슴을 터치하고, 신학적인 책이지요. 순화된 예수님 만나기 제일 좋은 곳이 요한복음이에요. 설교하기 제일 좋은 곳이 로마서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서니까. 예수님 빠진 거는 나는 잘. 예수님의 만남을 시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설교를 했었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 ■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면서 아, 약간 강조점이 약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성령님에 대한 일반 교회는 성령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에 병폐를 낳기도 합니다만,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특별 새벽기도때에. 특별 기도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벗어나는 성령이 되면 안되니, 조심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인 갈급함은 새벽기도에 다루지요. 성령에 대해서 한참을 하다가 안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한참을 하다가 안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하면 사람들이 자꾸 탄젠트로 가요. 자꾸 방언만 할려고 그러고. 이게 참 밸런스 맞추기가 어려워요.

### ■ 목사님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고 봐요. 있는 그대로. 근데 방언에 대한 비중을 너무 크게 뒀어요. 카리스 포비아도 안되고, 카리스 매니아도 안되고.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운데 분별력도 중요하고. 바울이 이야기한 그대로지 자꾸 넘어서는 안된다고.

### ■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예수라는 카테고리를 넘어서 그 성령의 은사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것과 관련되어 지난 번에 쓴 칼럼을 아주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사계절에 맞추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것으로 빠지는 것으로 다른 것을 다 정당화 시키려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의 밸런스와 실력 강화 안하고, 그러로 자꾸 쓰러뜨리려고만 하고. 나는 그런 모임을 너무나 많이 따라다녔어요. 베니힌도 따라다니고, 이단 비슷한 것도 다 따라다녀본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정직하지 않은 때가 많아요. 그런 거로다 넘어 가려고 그러고. 우리 2세 목사도 나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였어요. 방언 자꾸하고 계시 받은 대로 설교할려고. 나는 절대로 안된다. 설교 준비 철저히 해라. 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나는 그런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도 그런 체험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다가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생활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삶의 무책임한 것을 그것으로 커버하려는 경우도 많고. 내가 목사로서 그런 것은 안되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